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47호

###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축구협회는 불법촬영, 2차 가해 국가대표 선수를 퇴출하고 공개 사과하라.**

2023.11.24

**'피의자'였는데 한국 대표해 경기 뿔 자격 있는가'**

**황의조 정조준한 시민단체... "축협, 불법촬영 국가대표 퇴출하라"**

윤혜주 MBN 기자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APC 아시아 훈장 수상**

주영민 SBS 기자

**한국 최초의 스포츠 분야 종합형 박물관 건립**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스포츠박물관 착공**

안영준 뉴스기자

**(사)대한빙상경기연맹**

**'오늘은 내가 모태범' 유치부 초등 전국 생활 체육 빙상 대회 개막**

동규 노컷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b>보도자료</b>	배 포	2023년 11월 24일(목)
	보도일시	2023년 11월 24일(목)
 <b>체육시민연대</b> <small>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small>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 성명서

### 대한축구협회는 불법촬영, 2차 가해 국가대표 선수를 퇴출하고 공개 사과하라.

국가대표는 한 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뛰는 사람으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자격이다. 국민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위치에 있다.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

사진과 불법 영상을 유포한 범인은 구속되었다. 범인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지저분한 냄새가 풍긴다. 그렇다면 불법 영상을 촬영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 설령 유포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불법촬영이 불법이 아니거나 2차 가해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의 행태로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 선수를 출전시켰다. 당장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가대표는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음주운전, 도박, 마약, 성 비위 등과 같이 반사회적 범죄로 매우 엄중하다.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을 취했어야 당연하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에야 판단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일까?

반사회적, 비도덕적 논란에 휩싸여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023. 11. 24

체육시민연대

# 황의조 정조준한 시민단체... "축협, 불법촬영 국가대표 퇴출하라"

한국 최초의 체육분야 전문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체육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뒀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 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에 황의조가 출전한 것을 지적하며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리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황의조 출전을 막았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축구협회의 공개 사과와 더불어 황의조의 국가 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리스만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조는 중국과의 경기 이후 귀국하지 않고 바로 소속팀인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의 노리치시티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자정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노리치시티의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 그림을 알 정도로 내가 가진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며 "내가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황의조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바탕으로 기용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의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APC 아시아 훈장 수상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2023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시상식에서 아시아 훈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 회장이 지난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APC 시상식에서 아시아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훈장은 아시아지역 패럴림픽 무브먼트(운동·캠페인)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에 2년마다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정진완 회장은 약 30년 동안 국내외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 중심의 가치 실현,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아시아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9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패럴림픽 훈장도 수상했습니다.

정 회장은 "패럴림픽 훈장에 이어 이번 아시아 훈장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이영주 감독은 아시아 우수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 감독은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사이클 김정빈과 파일럿 윤중헌을 지도해 4,000m 개인 추발, 18.5km 도로 독주, 69km 개인 도로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도연도 여자 13.5km 도로 독주에서 금메달을 따내 2014년 인천 대회부터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스포츠박물관 착공

2023. 11. 24 (금)

문화체육관광부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스포츠박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분야 종합형 국립박물관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올림픽공원 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부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조현재 이사장,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및 김성호 건립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박물관 건립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기존의 서울올림픽기념관과 통합해 지상 3층, 연면적 10,819㎡의 규모로 건립된다.

역사관, 주제관, 서울올림픽관 및 어린이박물관 등 5개의 전시관과 3개의 수장고, 스포츠 전문 도서관, 교육체험실, 카페 등으로 구성되는 박물관은 2025년 2월 준공,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현재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스포츠 분야 종합형 국립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유물 보존은 물론, 전시·교육 기능까지 담당할 것"이라면서 "박물관의 정상 개관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스포츠 유산을 미래에 전달하는 거점이자 세계에 우리 스포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늘은 내가 모태범' 유치부 초등 전국 생활 체육 빙상 대회 개막

전국 유치부, 초등학생 스피드 스케이팅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체육 대회가 열린다.

(사)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다음달 10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제29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빙상(스피드스케이팅)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재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빙상 종목 동호인 선수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1인 최대 2개 종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유치부는 1인 1개 종목으로 제한한다. 초등학생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구분해 200m와 400m에서 기량을 겨룬다. 유치부는 100m와 200m 경기가 열린다. 각 종목은 여자부부터 진행한다.

출전 선수는 1인당 2만 원, 유치부는 3만 원의 참가 비용이 있다. 종목 추가시 1만 원이 추가된다. 빙상경기연맹 선수 등록 기록이 있는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사)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초등학생 200여 명, 유치부 100여 명 등 모두 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남녀 각 조 종목별 1~3위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된다. 기량이 우수한 클럽 소속 선수들에게는 전문 선수로 유입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참가 선수들은 개별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참가 전 대회 요강을 상세히 숙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에는 고등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스피드 스케이팅 생활 체육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교육 전문기관 스포츠 가치센터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148000007?input=1195m>

PGA 우승·AG 金 김시우, 자랑스러운 연세체육인상 수상...이성구 체육인상 김정준 LG 코치

<https://www.fnnews.com/news/202311271411187646>

강진군,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씨름대회 성황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27010017212>

평택시장애인체육회, '평택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활성화' 3자 협력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12713005077201>

전북체육회, 전국체전·동계체전 우수 단체 해외 견학 추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7109&ref=A>

진주시 협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잇따라 개최

<https://www.newsfreez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340>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아시아휠체어컬링선수권 초대 우승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12613572177579>

성남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내년 1월 시범운영...2월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4088200061?input=1195m>

"꿈과 희망을"...양양군체육회 유소년야구단 창단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094600062?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